

롯데마트 수완점 '바로배송' 서비스 인기

2시간 이내 도착...주문 건 수 374% 증가

도심 위치한 오프라인 매장 장점 극대화

얼마 전 수완동으로 이사를 왔다는 김다솜(31)씨는 며칠 전 롯데마트 수완점의 '바로배송'을 애용하고 있다. 최근에도 갑작스레 남편의 집급 소식과 더불어 미루던 집들이가 갑자기 잡혀 애를 먹었다는 김씨는 '바로배송'을 통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집도 엉망인데다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온라인을 통해 바로 필요한 식재료를 배송받을 수 있는 롯데마트 수완점의 '바로배송'이 생각나 휴대폰을 통해 필요한 식재료를 바로 구입했죠. 2시간 가량의 집 청소를 끝내고 무섭게 집 앞으로 필요한 식재료 모두가 배달되서 큰 어려움 없이 집들이 검 집급 축하상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롯데마트 수완점이 광주 지역에서의 '온라인 배송 전초기지'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도심에 위치해 있으면서 물류센터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오프라인 매장의 장점을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빠른 배

송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2시간 이내에 주문한 상품을 집 앞으로 배송해주는 '바로배송' 서비스가 인기다. 이는 외곽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집하한 후 배송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상품이 마트에서 바로 출발하기에 가능한 서비스다. '바로배송'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새벽배송보다 오히려 빠르고 시간대도 자유로워 인근에 거주하는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롯데마트 수완점은 피킹스테이션(Picking station, 수직리프트)과 천장에 긴 레일을 설치해 원활한 배송을 위한 시설물을 도입했다. 매장 안에 설치된 레일은 매장 밖 직원용 공간에 위치한 작은 물류창고를 연상케 하는 패킹장으로 연결된다. 한편 롯데마트 수완점은 지난해 10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점포에서는 최초로 '바로배송' 서비스를 도입, 올해 8월 기준 온라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4% 신장하는 등 크게 올랐다. 같은 기

간 일평균 189건이었던 온라인 주문건수 역시 374% 늘어난 70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재 수완점은 수완점 반경 9km 이내에 해당하는 수완동, 장덕동, 운남동, 흑석동, 산정동, 신창동, 신가동 등 약 7개동에 한해 바로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배효권 롯데마트 호남지역장은 "수완점이 위치한 수완동의 평균 연령은 평균 32.3세로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점도 바로배송 서비스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

하고 있는 점이다"라며 "바로배송 서비스 뿐 아니라 지난 8월 24일 새단장 오픈하여 더욱 쇼핑하기 편해진 수완점을 통해 고객들의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롯데마트 수완점에서 한 직원이 바로배송을 위해 온라인 주문 상품을 확인하고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경제 프리즘

벤츠코리아, 전용 전시관 오픈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럭셔리 고성능 브랜드 AMG의 전용 전시관인 'AMG 서울' (AMG Seoul)을 열었다. 벤츠코리아의 공식 딜러사인 한성자동차는 최근 미디어 콘퍼런스를 열고 서울 강남구에 오픈한 AMG 서울과 그간 AMG 브랜드의 성과, 향후 계획 등을 소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처음, 전 세계에서는 6번째로 문을 여는 AMG 서울은 차량 전시와 함께 시승, 구매까지 가능한 통합적인 브랜드 체험관으로, 전체 면적 1,239㎡, 지상 4층 규모로 설립됐다. 지난해 선보인 AMG 35를 비롯해 43, 45, 53, 63 등 다양한 모델과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색상과 옵션으로 구성된 특별 주문 제작 차량도 살펴볼 수 있다. 벤츠코리아는 올해 하반기 한국 시장 내 AMG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삼성, 추석 내수경기 활성화

삼성그룹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수 경기 활성화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삼성은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농가 돕기 착한소비' 캠페인을 전개한다. 삼성전자와 전자 관계사, 삼성물산 및 삼성금융관계사들은 임직원 대상 온라인 장터 내에 농협과 함께하는 별도 사이트를 만들고, 직원들이 농산물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50%를 지원해 판매 확대를 돕는다. 특히 작년보다 가격이 많이 내려간 고추, 양배추, 대파, 무, 배추, 오이 등을 패키지로 판매할 계획이다. 삼성 측은 "회사가 구매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임직원들은 양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농가는 대량 판매가 가능해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항공-아시아항공 결합 승인

대한항공은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승인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항공 위원회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 추진이 재정적 어려움에 빠진 '회생불가기업'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말레이시아의 경쟁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말레이시아는 기업결합 임의 신고 국가다. 임의 신고 국가는 기업결합 신고가 필수는 아니지만 대한항공이 향후 당국 조사 가능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신고한 국기를 의미한다. 대한항공은 앞서 1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현재까지 터키와 대만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했다. 태국에서는 기업결합심의 종료로 알리는 통보도 받았다.

'중기 통계데이터 정책 아이디어' 수상작 선정

최우수상에 '프랑스모델 기반 한국형 중소기업 정책'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가 제2회 '중소기업 통계데이터 활용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중소기업부의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데이터간 연계·결합을 통한 신규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실시됐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 등 총

6건의 제안자(팀)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중 최우수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상금 200만원)은 '프랑스모델 기반 중소기업 정책'을 제안한 윤선수, 전유하 팀(2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생)이 수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중소기업중앙회 주관으로 올해 2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에는 일반인, 대학(원)생, 연구원, 직장인 등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의 총

92개 팀이 참여했다. 중기중앙회는 제출된 응모작 중 데이터 활용성, 자료분석의 우수성, 독창성, 차별성 등을 고려해 최종 6건을 선정했다. 강지용 조사통계부장은 "다양한 중소기업 조사통계자료를 개방해 일반인들의 데이터 활용성을 높임과 동시에 참신한 정책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통계데이터를 통해 창의적인 제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한전은 최근 공기청정기가 최초로 보급되는 강원 정선군 노인요양원을 방문해 복지시설 어르신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생필품을 함께 전달했다. /한전제공

농어촌 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한국전력이 전력설비 인건 농어촌지역 복지시설에 고효율 공기청정기를 지원한다. 한전은 전국 농어촌 복지시설 약 540개소를 대상으로 10억원 상당 고효율 공기청정기 약 920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복지시설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걱정과 불편함을 덜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한전에서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했다. 한전은 미세먼지에 취약하고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이 부족한 노인·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농어촌 읍·면 지역 중 '석탄화력 발전소 밀집지역'과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지역' 내의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이용 인원, 해당 지역 지자체 추천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서미애 기자

한전, 재생에너지 접속용량 확대

한국전력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접속지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송배전 전력설비의 재생에너지 접속용량을 확대하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호남, 경북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밀집지역의 경우 송배전 설비의 접속가능 용량 부족으로 설비 보강을 통해

이를 해소해 왔으나 선로 보강 시 전주, 송전탑, 변전소 등의 전력설비 설치비용 대하는 민원과 선로 경과지 부족 등으로 공사가 장기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한전은 접속지연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가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 특별점검단'에 참여해 새로운 접속

지원 해소 대책을 마련했다. 한전은 배전선로에 상시 존재하는 최소부하(주택, 상업시설 등에서 상시 사용하는 최소전력)를 고려한 설비운영 개념을 도입해 변전소나 배전선로 증설 없이 재생에너지 접속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한전은 이같은 특별대책 외에도 지속적인 설비보강을 통해 내년까지 1.6GW를 추가로 해소할 예정이다. /서미애 기자

Cubicle Innovation
We will create a futuristic toilet culture

화장실칸막이의 모든것 중원큐비클과 함께

화장실 칸막이 40년 노하우로 직접 생산 및 전문시공업체
다년간의 관공서, 기업체, 상가, 병원, 학교, 어린이집, 휴게소 등
시공 및 판매 경험으로 화장실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해 드립니다.

- 직접생산을 통한 저렴한 가격
-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제품 신뢰성
- 생산자 직접 시공을 통한 완벽한 시공

전국 어디든 불러만 주시면 바로 달려 가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CUBICLE
[주]중원큐비클

T : (062)525-6993~4
F : (062)525-3832
(우)61900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502번길 20-8

M : 010-3647-3832
E : jwc3832@nate.com